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5월 9일(주일) 제1343호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기독교 OTT '풍당' 키즈 콘텐츠 후원 캠페인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동한 만큼 후원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이 막 오른다. 5월 22일(토)부터 6월 20일(주일)까지 이어진다.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참가자들이 자전거, 걷기, 달리기, 러닝머신, 사이클머신 등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이동한 거리를 '미션 캘린더'에 기록한 다음 이동 거리만큼 후원하는(예: 1km당

500원) 방식이다. 개인이 참여해도 좋고, 단체로 참가할 수도 있다. 내가 달린 만큼 가족, 지인, 순원들이 후원할 수도 있다(최대 4인).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의 목표는 거리 16만Km, 후원금 1억 원이다. 5월 7일부터 CGNTV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아래의 QR 코드로 신청

해도 된다. 미션 캘린더와 기념품은 5월 13일부터 참가 신청한 성도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5월 22일(토)에는 '달려라! 풍당'의 시작을 알리는 스페셜 라이딩을 진행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사전 신청자들이 달려라! 풍당 티셔츠를 입고 16km(서빙고 온누리교회-잠수교-한남대교남단-영동대교남

단-탄천-양재천)을 달린다. 자전거 및 걷기, 달리기로도 참가할 수 있다. 5개의 구간을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차세대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CGNTV 홈페이지 달려라! 풍당 안내(18일 오픈)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기간에는 기독교 OTT 풍당에 '달려라! 풍당' 클래스가 개설된다. 매주 '달려라! 풍당' 클래스 수강을 완료하고 수강 후기를 작성한 성도 10명에게 기프트콘을 전

달한다. 이무송 집사(이촌공동체)는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기독교 OTT 풍당 키즈 콘텐츠를 후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달려라! 풍당 참가신청 QR코드〉

올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지침

공동체 종강예배, 온라인, 국내 아웃리치, VR 선교체험관

2000선교본부가 2021년 아웃리치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는 공동체 종강예배, 온라인 아웃리치, 국내 이주민교회 아웃리치, VR 선교체험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는 종강예배를 기점으로 아웃리치를 시작한다. 종강예배에는 선교사를 초청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 온라인 아웃리치에서는 비대면과 대면을 활용해서 중보기도모임, 선교사케어, 예배 참석, 콘서트 등을 하면 된다.

국내 이주민교회 아웃리치는 2000선교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선교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VR 선교체험관은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44

/ 김영선 기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첫 모임

5월 11일 화 오후 8시 줌(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드디어 첫 모임을 한다. 5월 11일(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개인 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 소속을 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무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이다. 전도대상자, 구도자도 포함한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양육과 돌봄, 신앙성장을 돕는다. 참가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참가신청을 한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 링크(Zoom)를 보내준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김포M센터 10주년 감사예배

5월 9일 오전 11시

김포M센터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5월 9일 오전 11시 김포M센터에서 드린다. 노규식 목사(온누리M미션)가 설교할 예정이다.

김포M센터는 부천 온누리교회 이경복 집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네팔 청년 5명을 위한 예배처소를 만든 것이 김포M센터의 시초이다. 지금 김포M센터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온 이주민 근로자들과 난민,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성경적 경제체제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8~19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제어할 수 없이 불안한 시장 상황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낸다.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제안되었고 지난 세기 동안 많은 나

라에서 실험적으로 수행되었지만, 또 다른 폐해를 드러내었다. 성경적 경제관이 하나의 경제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 체제 속에 포함된 성경적 경제관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 삶에 실행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생산, 운송 및 판매 수단의 대부분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개인 혹은 축적된 자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경제체제이다.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그것을 증식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목표이다. 모든 상품과 노동력에는 가격이 매겨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이 주된 가격 결정권자이다. 이윤획득을 위한 자유경쟁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 전반의 공급이 풍요롭게 된다. 반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무제한 상품생산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혹은 생산부족으로 인한 가격폭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 심화될 경우 경제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데 개인의 능력과 일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생산수단을 집단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소유권은 국가, 집단 및 협동조합이 전체 혹은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로버트 오웬이 최초로 용어를 정립했다. 그는 영국에서 섬유제조업으로 모은 재산을 미국의 소도시들에서 실험적 사회주의 이상향 건설을 위해 투자하였으나 2~3년 이내에 모두 실패하였다. 이후 유토피아를 꿈꾸는 진보학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민주사회주의 분파와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려는 사회민주주의 분파로 분화되어 간다. 시장의 자유보다는 조율과 계획을 위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의 슬로건은 능력만큼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이며, 능력과 공평의 가치는 컨디셔너(conditioner)가 결정한다.

공산주의(共產主義, Communism)는 생산수단을 집단이 소유하고 모든 사람은 노동에 대해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주장되고 레닌, 마오, 김일성 등에 의해 실험적으로 수행된 경제체제이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데 능력의 가치와 필요한 양은 컨디셔너가 결정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생산성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켜 사회 전반의 부 축적에 기여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임금착취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제어할 수 없는 시장의 불안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을 예상했다. 그때 사회주의 체제를 거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체제로의 변증법적 상향 발전을 예상했다. 20세기 초중반에 독립 혹은 근대국가로 변환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소련을 비롯한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처참한 경제적 실패를 맞보았다.

어떤 정치체제도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어떤 경제체제도 완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다른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육문화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경제활동의 결과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 이웃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의 뒤틀림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던 청교도들의 근면한 직업관에서 유래하였다. 청교도들은 삶의 모든 측면을 성경 기준에 맞추려는,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내려는 실천가들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이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경제체제가 되었을 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본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나 직원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자본이 모여서 커질수록

익명성이 증가해 자본주의의 문제가 점점 쌓여가게 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이지만 역시 인간의 타락을 간과하는 실수를 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보상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편하고 싶은 이기심으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반면 자기 몫을 더 많이 분배받고 싶어 하는 이기심으로 분배요구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조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결국 국가 부도 사태에까지 이른다.

정치에서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평등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분배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성경의 정의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넘나드는 것처럼, 경제적 측면 역시 성경은 특정 경제체제의 가치에 머물러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타락한 개인의 회심은 가능하나, 집단에게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성경적 경제정의의 실현은 거듭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주변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묵상: 내 주변에서 성경적 경제정의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계관 운동의 나침반 '세계관학교(OWA)'

성경적 세계관의 역할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의학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의학적 지식 역시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의학 분야만 그럴까?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자연 만물은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모든 학문과 예술 영역의 창조주이자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 타락의 결과인 죄가 모든 영역에 왜곡된 모습을 남겼고, 기독교인이 교회 내 거룩한 신앙생활과 거룩하지 않은 교회 밖 세상적 영역이라는 이원론적 잣대에 안주하게 만들었다. 많은 기독교인이 세상 속 빛과 소금보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6)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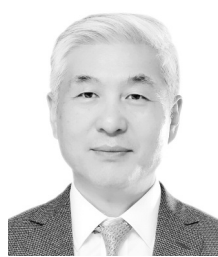
지난 4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다.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팀 스콧(Tim Scott)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연설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기조를 띤 대응 연설을 했다. 팀 스콧의 연설문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후미를 장식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상반되는 정치철학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의 세계관이란 모든 주변 환경과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깊은 마음속에 고착된 뿌리 깊은 가치관이다. 신앙의 모습조차 개인의 세계관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회심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진리에서 벗어난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열매의 풍성함이 심각하게 제한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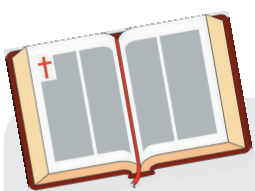
수 있다.

하나님은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시 46:10)고 말씀하셨다. 대충 믿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줄테니 차분하게 생각하고 확신으로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친절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것은 교만이요 거짓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종점에 회피할 수 없는 실존으로 당당하게 서 계신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깃든 만물과 세상의 많은 영역에 깃든 능력과 지혜를 통해 그분을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롬 1:20).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을 간구하며 과감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믿음의 여정에서 특별한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일반은

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로부터 교회와 세상 간의 이원론적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인 되신 모든 영역에서의 건강한 균형을 세워준다. 성경적 세계관은 변증론적 가치로 진화론과 같은 세상의 불순한 세계관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보호해주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가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서 기독교적 문화 사명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온누리교회가 이제는 세계관운동의 나침반으로써 특별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의 준비된 인프라와 온누리 세계관학교(OWA)를 하나님께서 오병이여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



신무환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가정은 우리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가장 치열하고 비참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만 가지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혼은 자기 발견의 방편이자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큼니다”고 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 이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신다

“너는 여호와와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네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사 62:3-5).

이 말씀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이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결혼하시고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기뻐하시고, 인간과 연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상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부부가 되는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양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한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혼은 일종의 비유, 예표, 상징,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살도록 일시적인 관계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 됨과 순종의 조화 회복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만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주고 남편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명령이 서로 다릅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박하게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실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조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22-24절).

이 말씀은 시대적인 여성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부부관계에 최우선으로 있어야 할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굴욕적이고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인격적, 자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하신 것은 근원,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될 수 없습니다. 머리는 계속 몸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는 섬김이자 희생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머리가 원천, 근원이라는 것은 몸이 머리로부터 모든 신경을 움직여서 살아가듯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왔듯이 남편이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책임이 남편의 머리 됨입니다.

남편의 모든 생각을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죄를 짓는 일에 동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순종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벧전 3:1-2).

머리다워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머리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최초 부부관계에 있었던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에게 먼저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을 때 여자 스스로 결정하고 불순종하고 남편에게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아내 스스로 머리 됨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됨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창 3:16).

여성에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다스림은 선한 의미가 아닙니다. 남성의 힘으로 짓누르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지배하려 하고, 남편이 지배당하지 않고 폭력으로 강압합니다. 죄가 깨뜨린 머리 됨과 순종의 조화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남편의 머리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타락의 순서와 하나님의 책망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가정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25-30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명령이 머리 됨의 책임입니다.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 희생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영광스러운 아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되도록 이끄는 책임도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머리 됨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 거룩, 사랑의 짐을 누가 먼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는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부관계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이 된 관계는 내가 사랑해줄 대상을 기다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해 줄 대상을 만난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대상을 내가 순종할 대상으로 만난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중심에 없는 가정은 아무리 많은 물질과 부귀영화가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미리 경험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경을 쓰자”

“직장에서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이나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착한 크리스천 콤플렉스’ 때문에 그냥 좋게만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종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로 직장생활 27년 차, 유학생활 마치고 귀국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본 나로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고민을 매우 깊이 공감한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만두려고 하는 청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술 때문에, 주말 특근 때문에, 영업상 이유로 비성경적인 방법을 강요받는 일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경쟁 체제에서 늘 양보만 하다가 무시당하고 뒤처지기도 하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험을 나누고 싶다. 국내 화학회사에서 근무할 때 일이

었다. 경쟁이 치열했고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다. 나는 순장으로 섬기면서 순예배와 주일에 배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회사 업무가 있을 때는 순예배를 부순장에게 부탁하고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순예배가 있는 금요일마다 회식이나 급한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 일도 회사 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가끔 급한 일들로 모두 야근해야 할 때 내가 교회에 가지 않고 같이 야근하는 것을 오히려 동료들이 고마워하고 걱정해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내가 순예배와 주일에배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가 나를 지켜주었던 것 같다.

하루는 연말 평가 시즌이었었는데 담당 임원이 나를 불렀다. 동료 중 한 명이 회사의 필요한 일을 위해 승진해야 하는데 상위평가를 그에게 양보하라고 했다. 평가는 연봉과 임원승진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나로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조목조목 따지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내가 크리스천임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주 주일에배에서 하

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 그날 주일에배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남미에서 의료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된 의사선생님을 보면서 고작 평가와 승진 때문에 사표를 쓰려고 했던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단숨에 찾아왔다. 그만두기로 했던 마음을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직장에서의 삶이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해 내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나는 현재 몇 개 회사를 거치며 임원으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직을 스스로 기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연봉을 협상해본 적도 없다.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인 골프나 술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는 많이 양보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갑’의 위치가 되고 상대방이 ‘을’의 위치가 된다는 것이다. 요즘도 나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특별한 안경을 쓴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안경이다.

직장생활은 늘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나 고

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난다. 당장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 은혜를 주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라고 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여.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성직(聖職)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멘토님들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청년들이 고민이나 사연을 보내주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조언과 위로를 선물한다. 고민이나 사연 보내는 곳: joo@onnuri.org



황윤일 장로
(허브대학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관계와 긍정적 스트로크

“결혼 전에는 남편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눈도 안 마주쳐주고 말도 잘 안 합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저도 남편에게 차갑게 말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남편과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를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부의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에릭 번의 교류분석에서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관계형성, 유지 패턴을 이해하는데 ‘스트로크(stroke)’를 강조한다. 스트로크는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말, 인사, 스킨십, 칭찬, 부드러운 말투, 눈빛 등 의사소통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트로크는 언어적/비언어적, 긍정적/부정적, 무조건적/조건적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다. 부부관계가 친밀하다면 언어적, 비언어적, 긍정적, 무조건적인 스트로크를 주고받게 된다. 따뜻한 눈빛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부드러운 말투로 감사와 사랑을 주고받는 다. 하지만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친밀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부정적이고 조건적인 스트로크를 주고받게 된다. 배우자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비난하고 조롱 섞인 말을 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자연스럽게 눈빛이 차가워지고 말투가 딱딱해진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삼상 19:10).

사울 왕은 창을 던지는 행동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증오를 전달하고 있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등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창을 던지는 행동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죽이려한 행동이었다. 사울 왕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다윗에게 쏟아 부었다. 그 결과는 관계단절이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다양한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쏟기도 한다. 특히 갈등이 폭발해서 부부싸움을 할 경우 부부는 서로의 언어와 행동에서 무수히 날 선 것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차가운 눈빛, 한심하게 바라보는 태도,

화로 가득한 얼굴 표정 등이다. 부정적인 스트로크의 결과는 부부관계 단절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대가가 필요하다.

부부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를 차가운 말투와 눈빛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배우자를 인정하거나 격려하기보다 비난하거나 책망의 어투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대인관계 스트로크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스트로크를 배우자와 주고받는 연습을 한다면 결혼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친밀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지금은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따뜻하게 전해보자. “나는 당신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했던 것이 참 기쁘고 좋았어요. 지금도 나는 당신과 눈을 보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눈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라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로 전해보자.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사용함으로써 부부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상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다. 자신을 수용적으로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배우자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부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서로의 관계에서 칭찬, 사랑, 감사, 따뜻한 눈빛, 가벼운 포옹 등이 인색했더라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표현함으로써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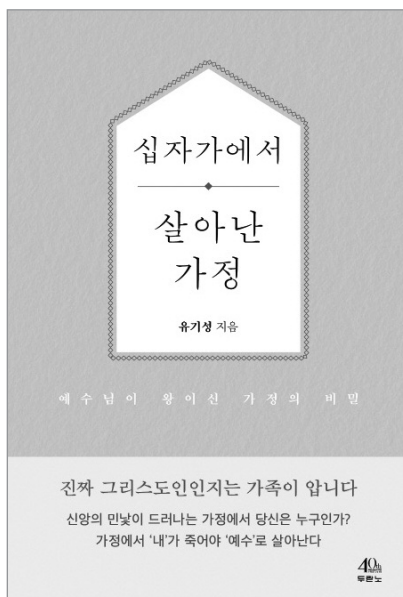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가정을 배우고, 집중하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유기성 저 | 두란노 | 15,000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누는 말씀처럼 살고

싶어 한다. 그 사람처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 주인공은 오늘 소개할 책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의 저자이자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인 유기성 목사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저자 본인은 결혼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한다. 또 자신을 배우자로 선택한 아내가 무모했다고 말한다. 만약 지금까지 그때와 변함 없었다면 자신의 부부생활과 가정은 끔찍했을 거라고 고백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였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무엇이 저자와 가정을 변화시켰을까? 책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에 정답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그 필요성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 등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한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처음 만나는 존재다. 부모가 되는 것이 처음이고, 자

녀가 되는 것도 처음이다. 조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누구도 그 자리를 배우지 않는다.

환경의 변화는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이사한 가정이라고 가정해보자.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사한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좋은 학교와 학원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자녀는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바쁘다. 친구들을 새로 사귀고, 학교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기 바쁘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이자 새로운 환경의 변화인 만큼 적응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외부로 에너지가 집중된 만큼 가정에 소홀해지기 쉽다. 가정에 소홀해지면 어느 순간 대화 단절이 시작된다. 각자의 방문이 굳게 닫히기 시작한다. 가정 외의 것이 변화된 만큼 가정 내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정에 집중해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공동체다. 가정이 살아야 그 다음 공동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긍정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학교, 회사, 모임, 교회 공동체 등 일상의 수많은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 바로 그 가정의 회복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책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을 읽으면서 가정이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한다. 이 책을 온 가족이 함께 읽고 대화하면 이전과 다른 가정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유준석 목사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특별기고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한 ‘백마풍당교회’의 꿈

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군복음화를 위해 17년째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대대급 교회 백마승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채희용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병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예배 형식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CGNTV 기독교 OTT ‘풍당’을 적극 도입한 ‘백마풍당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대대 신우회가 주축이 되어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긴박하게 영상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대 밖에 있는 폐관사 자리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돔 형태의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중인 교회는 약 49.5㎡ 규모로 대대 간부 가족들과 찬양팀, 군중병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까지 움직이셔서 모든 절차상 필요한 과정과 건축법상 환경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5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마풍당교회’ 건축이 완공되면 CGNTV

기독교 OTT ‘풍당’ 플랫폼을 활용해서 장병들에게는 맞춤 양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대별로 장병들을 양육시킬 계획입니다. 군복음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마 사단 예하 18개 대대급 교회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열고 CGNTV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한 예배와 양육을 전파해나갈 것입니다.

백마풍당교회는 장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성경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참된 크리스천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신우회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아쉬웠던 일이 있습니다. 전입 신병 환영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의 전역을 환송해 주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파송한 일입니다. 백마풍당교회가 완공되면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전입 신병 환영과 동시에 양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상담과 인생진로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전공한 심리상담학(Ph.D)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대 장병들의 심리검사(MBTI, 자아발견, Holland 검사)와 ‘천직발견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해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천직발견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전역해서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백마승리교회가 잠시 멈추었던 새생명 전도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고, 전역 장병들의 흠기 밋데이인 ‘빅토리 미션 페스티벌(Victory Mission Festival)’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복음화 전초기지 ‘백마풍당교회’가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2%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용 목사(백마승리교회)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기대와 준비

기대 가운데
해가 뜨고 달이 지리
준비 가운데
성좌가 뜨고 은하가 지리
천년이 흘러가고
만년이 다가오지

준비가 되었기에
꽃은 떨어지고 별은 지리
기대에 맞추어
별이 뜨고 꽃이 피리
고난은 지나가고
환희가 다가오지

기대가 있기에
만남이 기쁘게 되리
준비가 있기에
이별이 서럽지 않지
얻으니 기쁘고
잃어도 안 아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본래의 자리로 ... 가정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



한건수 교수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국민대 겸임교수)

“사춘기 아들이 방 문을 닫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말이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부 혹은 다른 가정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불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선택적 반응이 관계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기도 하고, 진부한 관계에 머물게 하기도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라는 신호가 주는 의미와 그에 따른 반응을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

팀(Team)이라는 단어는 주로 스포츠에서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동일한 목표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룹을 일컫는다.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구성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돌보는 일을 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하와를 ‘돕는 자’로 보내셨다. 그런데 최초의 팀에서 불안이 발생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자체가 불안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에 불만이 생겼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창 3:1b)라고 질문을 받은 하와가 불만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 죄는 같은 팀 구성원인 아담에게도 흘러간다. 팀의 죄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화를 낸다. 결국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다.

팀 구성원이 불안을 느낄 때 점검해야 하는 원인이 다양한데 그 하나가 ‘팀 내 갈등’이다. 서두에 언급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 뒤에는 평소 아들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인이 아벨로부터 느낀 불안 뒤에도 갈등이 존재했다. 불안이 팀에게 좋은 친밀함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갈등 반응을 나타내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개념(그림 참고)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적 갈등관리를 위한 사역단체 (사)한국 피스메이커에서는 불안의 중심에 있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갈등의 경사도로 설명한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선택

의 범주에서 반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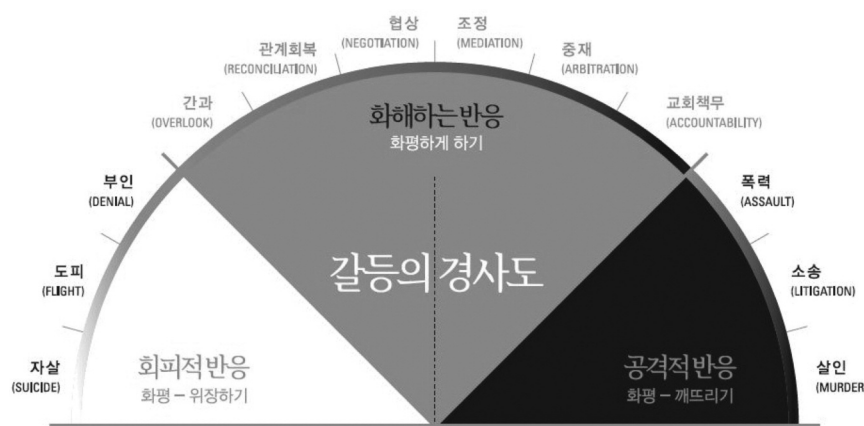
첫째, 화평을 위장한 ‘회피적 반응’이다. 화평을 위장한 회피적 반응은 자살, 도피, 부인(否認)의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갈등 상황에서 도피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부인 단계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갈등 상황을 직면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단계이다.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갈등을 피하고자 자녀에게 사춘기라는 태그를 붙여 존재하는 갈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

계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급기야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논쟁거리가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반응은 ‘화해하는 반응’이다.

화해하는 반응과 관계회복

화해하는 반응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단계인 ‘간과(overlook)’에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관



갈등반응을 나타내는 미끄러운 경사면(출처: (사)한국피스메이커).

“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팀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불안을 느낄 때 다른 것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화해하는 반응으로 없애야 한다.**

”

해보야 한다.

둘째, 화평을 깨뜨리는 ‘공격적 반응’이다. 공격적 반응은 언어폭력, 신체 폭력, 소송과 살인도 이에 해당된다. 소송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한다면 이 또한 공격적 반응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격적 반응 중 하나인 폭력은 정치적 관점이 다른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대화의 끝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마무리되기 쉽다. “너는 맨날 그런다”, “그러니 내가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절대 잘 될 수 없다” 등이다. ‘맨날, 항상, 또, 절대’와 같은 표현은 힘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공격적 반응이다. 이러한 말이 몇 번 오고 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

계회복을 넘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협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협상’이다.

필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피스메이커 워크숍에서 화해하는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 참가 학생의 어머니가 강의에 함께 참여하셨고, 학생보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다. 그 어머니는 참가 학생 옆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잘못하면 대화가 서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성경적 반응인 관계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자 진행자인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서로의 견해 차이와 욕구를 확인한 모녀는

워크숍이 끝나고 집에서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를 넘어 실제적인 약속인 협상을 위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두 사람이 신뢰하는 제3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조정), 이 또한 화해하는 반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아내와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면 가끔 조정을 요청한다. 일명 ‘자녀 찬스’이다. 두 자녀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아내와 합의하고 진행한다. 중1 아들과 고1 딸이 각자의 의견을 내면서 부모의 다툼에 조정자가 되고, 조정을 거치면서 필자와 아내가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팀 구성원과 깨진 관계에서 화해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과정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한 순간에는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팀 구성원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팀 구성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사랑은 회피나 공격적 반응이 아니라 화해하는 반응을 선택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다.

몇 주 전 ‘불후의 명곡’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았다.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셨던 하덕규 목사님 편이었다. 하덕규 목사님의 곡을 가수들이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불렀다. 그중에서 ‘풍경’이라는 곡이 참 인상 깊었다. 가수 유리상자가 풍경을 부르고 나서 “이번처럼 가사의 부담 없이 편안하게 불러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사가 단순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가정도 예외일 수 없다.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팀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불안을 느낄 때 다른 것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화해하는 반응으로 없애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본연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회복하는 5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대한다.

‘행복드림 콘서트’로 부모님께 복음을!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의 열매가 벌써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이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지난 3일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부모님들의 결신서가 전도본부에 도착하고 있다. 오소연 성도(SNS청년부)의 아버님 오사균 어르신도 ‘행복드림 콘서트’를 시청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행복드림 콘서트’ 러닝타임은 64분이다. 가수 노사연, 가수 여행스케치, 뮤지컬 배우 김성기의 공연,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등이 이어진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를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준비하면 더욱 좋다.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에서 결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전도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복드림 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님을 위한 세례식은 5월 23일 열

린새신자예배(오후 7시)에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MN 라파팀, 안산M센터에 약품 후원

소염제, 소화제, 근육통, 연고, 파스 등 상비약

지난 4월 24일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라파팀이 안산 M센터에 약품을 후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의료 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에 해열진통 소염제, 소화제, 감기, 근육통, 습진 연고, 파스, 구충제, 종합 비타민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비약을 전달했다.

상비약은 안산M센터 소속 15개 공동체(네팔, 스리랑카, 몽골, 아랍,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러시

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장년,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에 전달했다. 각 공동체에서는 약품명과 용도, 사용법 등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이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이주민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도 힘들고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신 CMN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카네이션과 ‘사랑의 상자’ 나눔

서빙고 이웃사랑팀, 독거노인 100여 가정 방문

지난 5월 8일(토) 어버이날,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했다.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지역 독거노인 100여 가정을 방문해서 카네이션과 ‘사랑의 상자’를 선물했다. S브릿지공동체와 브릿지33+공동체 지체들도 동참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주(구제봉사주일)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일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철원 총무(서빙고 이웃사랑팀)는 “코로나19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줄고,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서 갈 곳 없어진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선물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5월 화요성령집회 ‘영광의 도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본당

5월 화요성령집회가 ‘영광의 도구’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5월 4일 ‘평화의 도구’(눅 10:1~6) 김승수 목사, 11일 ‘성령의 도구’(요 16:5~11) 이서진 목사, 18일 ‘연합의 도구’(느 2:11~20) 김승수 목사, 25일 ‘영광의 도구’

(사 45:1~13)를 주제로 최성민 목사가 설교한다.

화요성령집회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예약시스템에 접속하면 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02-570-7521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 모집

5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후 1시 온라인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부부 회복 프로그램이다.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성경적 가정원리를

따라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을 수료하면 선택과목 2학점이 부여된다. 참가신청은 5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010-9041-5538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5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

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539-5665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청소년반과 부모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반은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모반은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면접을 보고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회비는 10만 원(부부 2인 신청하면 15만 원).

문의: 010-4548-1522

두란노어머니학교 5월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5월 P.P(Power Prayer)기도회가 열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5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7기 참가자 모집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

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비전을 품고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135-2865

성경적 부모교실, 기독교 성교육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가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보기, 자녀훈계 18계명, 자녀의 마음듣기, 생명의 말하기, 떠나보내기 등을 주제로 이기복 목사(성경적 부모교실)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5월 3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기독교 성교육’ 세미나가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의 방향성과 핵심, 기독교 가정의 음란물 예방 교육 및 자녀의 영적 근력 키우기, 기독교 가정의 생활 속 생명윤리 교육과 태아 사랑 등을 주제로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6월 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최종제시일로부터 2주 더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3078-3265

